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신선미 선임연구위원 (Tel:02-3156-7125 / e-mail: seonshin@kwidimail.re.kr)

청년여성 관점에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

초 록

- 직업훈련은 성별, 연령, 취업 여부, 직업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와 일할 의사를 가진 예비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정부는 직업훈련에 성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여성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이 원칙은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청년층 직업훈련에서 여성의 참여와 성과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연구는 청년층 취업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청년층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청년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년여성의 관점에서 직업훈련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함.

1. 배경 및 문제점

- 📍 2000년대 후반 이후 청년고용정책 예산에서 직업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자 수가 증가했음.

〈표 1〉 청년고용사업의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예산 현황

(단위 : %, 억원)

정책유형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접일자리	487	2,127	1,366	1,262	1,402	1,632	2,435	1,678
직업훈련	1,305	1,434	1,456	1,786	1,946	2,479	3,147	3,700
고용서비스	355	731	729	600	370	410	433	478
고용장려금	20	1,964	1,796	1,934	2,178	2,429	1,173	1,677
창업지원	-	-	-	112	112	112	183	201
합 계	2,168	6,256	5,347	5,694	6,008	7,062	7,371	7,734
직업훈련 예산비중	60.2	22.9	27.2	31.4	32.4	35.1	42.7	47.8

주) 청년고용사업은 지원조건이나 참여자격에서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대학 등 기관 지원에서 그 참여와 지원 범위를 재학생 등으로 분명히 한 사업만을 포함하였음.

자료: 주무현(2015, p. 102.)에서 청년 예산을 추출하고 비율을 계산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진보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청년여성의 직업훈련분야는 새로 창출되는 직업분야보다 전통적으로 여성 지배적 직업분야(보건, 교육, 사무 등)에 집중됨.
- 정부는 직업훈련에 성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여성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음. 이 원칙은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성과분석이 부족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1. 청년여성 관점에서 본 직업훈련의 의미

- 직업훈련정책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나 청년여성들은 직업훈련을 매우 제한된 의미로, 즉 취업 혹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습득, 혹은 실무에 대한 적응력제고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청년여성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함. 대학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의 청년 여성 중에서 87%가 직업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가장 주된 이유(52.4%)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임.
- 비정규직 청년여성은 실무능력습득을 위한 훈련 못지않게 안정된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직업 진로지도를 원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서비스를 찾지 못하고 있음.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층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직업진로지도는 특정시기에만 제공되므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비정규직 청년여성 면접사례〉

-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재개발 프로그램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스피치를 배웠는데 입사 후 생각해보니 왜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회사에 어떤 업무가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취업까지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던져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 “이곳에서 퇴사를 하고 같은 직군으로 경력을 살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성장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필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제가 지금 현재하는 일 분야에서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능력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 일에 대해서 일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선배들이 없어요. 다 계약직 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현황

- ▶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인구는 재학 중인 청년층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직업훈련 참여자도 많음. <표 2>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남성과 비교하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참여율도 높음.

〈표 2〉 학교 졸업·중퇴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

분석자료	조사내용/ 조사기준 기간	교육수준	모집단 인구 대비 훈련참여자 비율		
			남성(A)	여성(B)	A-B
지역별 고용조사(2014, 상반기)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직업교육훈련 -지난 1년	중졸 이하	11.8	11.2	0.6
		고졸	25.0	18.6	6.3
		전문대졸	37.3	33.1	4.1
		4년제 대졸 이상	39.1	35.7	3.4
		전체	32.1	29.3	2.8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2015)	-직업능력향상 교육훈련 (교양, 평생학습, 정규학교교육 실습, 학원수강, 고시 등 제외) -대학 입학부터 졸업 후 18- 24개월	4년제 대졸	13.3	14.3	-1.0
		전문대졸	11.2	11.1	0.1

- ▶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한 30대 미만 청년층 참여자의 성비를 분석한 결과, 남녀가 비슷하게 참여 하는 사업이 적고 남성 참여율이 높은 사업, 여성 참여율이 높은 사업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음(표 3).

〈표 3〉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청년층 참여자 수 및 성비(명, %)

유형	훈련사업명	30세 미만 참 여자 수	30세 미만 참여율	30세 미만 성비		남성 지배적 훈련	여성 지배적 훈련
				남성	여성		
재직자 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114,165	35.3	23.1	76.9		○
	근로자직무능력향상	2,838	26.0	27.9	72.1		○
	재직자계좌적합훈련과정	204	21.9	24.5	75.5		○
	사업주지원금훈련	749,326	27.2	51.1	48.9	-	-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49,264	26.4	74.4	25.6	○	
	지역산업맞춤형훈련	16,885	31.2	77.4	22.6	○	
실업자 훈련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64,717	36.5	30.7	69.3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44,050	67.6	66.4	33.6	○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13,226	74.0	90.2	9.8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95	8.3	-	100.0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362	5.9	92.0	8.0	○	
	산재근로자직업훈련	81	3.9	92.8	7.2	○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1,586	95.3	77.6	22.4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178	37.0	71.3	28.7	○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140	36.0	92.1	7.9	○	
	취업성공패키지II(훈련참여자)	27,857	79.5	41.3	58.7	-	-

주)취업성공패키지는 이 사업을 통한 훈련 참여현황을 의미함.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 표에 제시된 훈련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훈련사업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청년여성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다름. 즉,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여성들은 주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지만, 이미 취업한 청년여성들은 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음. 전체 청년여성 인구에서 취업자가 비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적지만, 직업훈련 참여율은 취업자가 실업자의 두 배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약 10배 가까이 높음. 또한 취업자의 경우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에 비해 두 배 이상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음. 따라서 직업훈련 참여자 수 측면에서 보자면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보다 취업자(특히 상용직)의 역량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큼. 이러한 경향은 남성도 마찬가지이나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자 훈련의 비중이 큼.

3. 청년여성 직업훈련의 질적 특성과 성과

- ▶ 청년층 직업훈련에서 성별 격차는 참여기회보다 훈련의 질과 성과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훈련의 질적 특성과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제한적임.
- ▶ 제한된 범위에서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의 질 측면에서 관찰된 성별 격차는 다음과 같음.
 - 1) 성별에 따라 훈련분야가 다름. 즉, 남성은 기계, 건설, 전기, 전자, 컴퓨터, 여성은 서비스, 경영-사무, 보건-의료, 교육-사회복지 분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있음. 그 중에서 교육-사회복지 분야는 청년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분야이나 신규 구인수요의 비중은 중간 이하이므로 훈련분야와 구인직종 간에 미스매치가 발견됨.
 - 2) 청년여성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시간 수와 자부담 비용이 남성보다 낮음.
 - 3) 정부지원훈련과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 훈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적음.
- ▶ 훈련성과 측면에서 취업률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거나 여성이 높은 경우가 많았음.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1) 청년층에서 지난 1년 간 취업-창업-이직 및 전직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이 실제로 일자리로 연계된 비율은 여성(35.4%)이 남성(30.9%)보다 높았음.
 - 2)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층의 취업률을 보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취업 성공패키지의 직업훈련 참여자, 그밖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훈련, 국가유공자 공공직업교육훈련에서 청년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음. 고용유지율도 여성이 더 높은 사업들이 다수임.

〈표 4〉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한 30세 미만 청년층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성별 비교(%)

실업자 훈련사업명	취업률		고용유지율(6개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69.4	70.7	50.1	56.6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63.4	62.5	52.2	56.5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30.5	39.5	28.9	27.1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65.3	-	57.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42.0	34.5	37.1	50.0
산재근로자직업훈련	57.3	66.7	25.6	75.0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90.6	91.3	71.3	66.4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54.3	51.0	59.4	50.0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51.9	63.6	37.3	14.3
취업성공패키지Ⅱ(훈련참여자)	75.4	76.9	94.7	94.9

4. 정책현장의 요구

- ▶ 청년여성들은 직업훈련의 의미를 일자리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하며, 훈련의 필요성을 일자리 경험을 한 후에야 체감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에 대하여 회사나 대학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제공받는 경향이 있음.
- ▶ 훈련목표설정이 부족한 채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비효율성이 있음. 훈련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탐색적인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여성들에게 심화된 직업지도 서비스와 같이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투자가 큰 직업훈련 기회를 꼭 필요한 청년여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청년여성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취업이나 이직할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길 안내가 필요함. 특히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직업경력을 갖춘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안내가 필요함.
- ▶ 기초훈련을 이미 받았거나 훈련분야에서 이미 일자리 경험이 있는 청년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함.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경력을 살리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한 훈련기회를 찾기 어려움. 훈련분야가 청년여성의 필요에 부응할 정도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음.

3. 정책제언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정의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동범위 조항을 신설하여 미취업자의 취업준비만이 아니라 취업자의 직업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활동, 특정 직무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 활동만이 아니라 취업준비활동, 개인의 능력진단과 직업발전계획 수립활동, 성별 다양성 증진 활동, 성 차별적 고정관념 해소 활동을 직업훈련에 포함시킴.
- ▶ 외국사례 : 프랑스 노동법에서 직업훈련의 활동범위

2. 청년층 훈련기회의 형평성 제고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동 법에 모든 근로자(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포함)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
- ▶ 예를 들어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의 경우 기업/기관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DB화 함. 이 때 국가적 수준에서 훈련기회의 형평성을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함. 또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정한 경력기간(예, 2년)에 걸쳐 최소한의 직업훈련(예, 10시간 이상)을 받고 있는가를 사업주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함.

3. 청년여성의 평생경력개발시스템 구축 및 직업진로지도 강화

- ▶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 시스템을 통해 대학생 진로개발과 취업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성별, 전공, 학업성취도,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대학생 직업 진로지도 서비스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함.
- ▶ 학업을 마친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평생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함. 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여성들에게 개인별 계정을 만들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각 대학의 학생경력개발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함. 훈련상담사가 <평생경력개발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별 상담을 실시함은 물론, 체계적인 직업지도를 희망하는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하나의 독립된 직업훈련사업으로 운영함.

4. 직업능력진단제 도입과 청년여성을 위한 시범운영

- ▶ 일정기간 일자리 경험이 축적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업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진단 서비스를 도입함.
- ▶ 직업능력진단은 여러 가지 직업진로지도 방법(정보제공, 평가 및 진단, 개인상담, 진로교육, 일자리 경험, 구직 및 전직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바람직한 직업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을 의미함. 운영목적은 직업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부여, 개인의 직업능력진단, 개인별 직업발전계획 수립 등임.
- ▶ 직업능력진단은 교육훈련 경험과 일자리 경험이 새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진단하는 활동을 포함하므로, 일정기간 일자리 경험이 축적되어야 참여 가능함. 특히 직업경력을 가진 미취업자,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의 청년여성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함.
-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이후 다른 정책대상 집단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직업능력진단 활동을 직업훈련의 일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2)직업능력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컨설턴트 인력을 육성하며, 3)컨설턴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 및 직무능력진단 도구 등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함.

5. 심화단계 훈련확대와 청년여성 특화 직종 개발

- ▶ HRD-net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여성이 참여한 훈련분야, NCS 수준, 취업성과, 심화단계의 직업 훈련 수요가 높은 분야 점검
- ▶ 가구단위의 개인별 직업훈련 참여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여성의 직업 훈련에 대한 수요, 직업훈련 참여실태, 직업훈련의 성과 조사
- ▶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분야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특화 훈련 직종 개발(예,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신뢰성 보증(quality assurance),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

6.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통계인프라 개선

- ▶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통계조사 실시를 통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고용상 지위나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 인적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성과 모니터링

- ▶ 사업주지원 직업훈련이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직업적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칭)근로자 직업훈련 실태조사” 실시
-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직업훈련 문항을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선

참고자료

주무현(2015). 「청년 고용대책 재정구조의 실태와 과제」. 이영민 외 편(2015). 「청년 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101-112.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